

# COLUMN

## 9평 대비 실전 시간 관리 요령

CONTENTS | 각 시간 관리법별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확립하자!

### ☑ 시간 관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모의고사에서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통해 **다른 문제를 검토하고, 실수를 보완 할만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그렇기에 어중간하게 1~2분 정도를 남길 바에는 차라리 문제를 천천히 푸는 게 낫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모의고사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본다.

#### ● 4~5등급을 위하여

4~5등급 학생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3점짜리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4점짜리를 맞추는 것보다 3점짜리를 확실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공통 과목 기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이 있다.

#### Strategy 01 3점 집중 플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8번	9~10번	16~19번	20번	23~27번	전체 검토				

- 장점** | 확실하게 일정 수준의 점수를 보장할 수 있다.  
3점짜리 문제에 집중할 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
- 단점** | 4점짜리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일정 수준(max=3등급) 이상의 점수는 받기 어렵다.

#### Strategy 02 기초 4점 정복 플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8번	9~12번	16~20번	23~28번	전체 검토					

- 장점** | 실력을 향상하고 긴장되는 상황에서의 대비가 가능하다.  
문제 운이 잘 따라줄 경우에는 고득점(max=2등급)도 가능하다.
- 단점** | 앞 문제의 검토가 확실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가 생각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가 큼)  
경우에 따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 SNU TIP |

STRATEGY 01은 수능 때, STRATEGY 02는 9월/10월 모의고사 및 각종 사설 모의고사 때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수능 때 자신의 루틴을 벗어나 욕심을 부리다가 저점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신 안정적인 득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공부 방향

- 9평까지는 3점을 전부 다 맞는 방향으로 공부한다.
- 이와 더불어 쉬운 4점 N제 및 기출을 학습하면서 실력을 기른다.
- 사설 모의고사를 이용하여 현재 실력에 맞는 시간 관리 플랜을 설정하고, 자주 시험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향을 설정한다.
- EBS, 기출, 교육청, 사관학교 등의 문제를 다시금 복습하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다.

### ADVICE

이 등급대의 학생들은 이제 급격한 성적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성적의 하한선을 보호하고, 3등급 상위권 정도의 실력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 ● 2.5~3등급을 위하여

2~3등급 학생들은 기초가 부족하기보다는 일부 실수와 모르는 문제가 동시에 결합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맞힐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맞자는 마인드로 갈 필요가 있다. 특히나 검토 시간을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시간대이다. **미적분/기하** 선택자의 경우 아래의 플랜을 따르고 **확통** 선택자의 경우 아래의 플랜에서 선택 과목의 시간을 3~4분 정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Strategy 01 4점 보장 플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번	10~12번	16~19번	20~21번	23~28(or29)	전체 검토				

- 장점** | 검토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2등급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남은 문제를 잘 찍고, 문제 운이 잘 따라주면 1등급까지도 가능하고, 검토 시간도 상당히 보장된다.
- 단점** | 검토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점수가 따라준다. 다시 말해, 마지막 30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게 전부다.

### Strategy 02 준킬러 대비 플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번	10~13번	16~19번	20~21번	23~29번	전체 검토				

- 장점** | 실력을 향상하고 긴장되는 상황에서의 대비가 가능하다.  
문제만 잘 맞추고 대비 가능한 유형(삼도극/수열 추적/도형) 등이 나오면 1등급 후반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 단점** | 앞 문제의 검토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가 생각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가 큼)  
경우에 따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 SNU TIP |

이 영역대의 학생들은 자신이 준킬러를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풀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자신을 객관화해보면 조금씩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추가적 성적 향상을 원한다면 모의고사 때는 **Strategy 02**를 활용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1.5~2등급 대의 **Strategy 01**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최저를 맞추기 위한 용도 등 일정 성적의 보장이 필요하다면 **Strategy 01**을 추천합니다.

#### 앞으로의 공부 방향

1 9평까지는 준킬러 제외 모든 4점을 맞는 방향으로 공부한다.



2 이와 더불어 쉬운 4점 N제 및 기출을 학습하면서 실력을 기른다.



3 사설 모의고사를 이용하여 현재 실력에 맞는 시간 관리 플랜을 설정하고, 자주 시험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향을 설정한다.



4 EBS, 기출, 교육청, 사관학교 등의 문제를 다시금 복습하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다.

#### ADVICE

이 등급대의 학생들은 수능 전까지 '1등급을 맞자'라는 각오로 수능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란 무리하게 성적을 올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현재의 성적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십시오. 1등급을 위해서라면 기출문제와 사설 모의고사를 충분히 많이 풀어보세요. 아직은 베이스와 실력 향상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입니다.

#### 1.5~2등급을 위하여

2~3등급 학생들은 기초가 부족하기보다는 일부 실수와 모르는 문제가 동시에 결합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맞힐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맞자는 마인드로 갈 필요가 있다. 특히나 검토 시간을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시간대이다. **미적분/기하** 선택자의 경우 아래의 플랜을 따르고 **확통** 선택자의 경우 아래의 플랜에서 선택 과목의 시간을 3~4분 정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Strategy 01 2등급 보장 플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3(or14)	16~20(or21)	23~27번	28or29	전체 검토					

\* 여기서 말하는 'or'은 자신이 자신있는 유형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푸는 것을 의미

- 장점** | 검토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2등급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남은 문제를 잘 찌고, 문제 운이 잘 따라주면 1등급까지도 가능하고, 검토 시간도 상당히 보장된다.
- 단점** | 검토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점수가 따라준다. 다시 말해, 마지막 30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게 전부다.

### Strategy 02 1등급 도전 플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3번	16~21번	1차 검토	23~27번	28~29번	2차 검토				

- 장점** | 검토와 문제 풀이만 확실하게 잘 끝내면 1등급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  
문제만 잘 맞추고 대비 가능한 유형(삼도극/수열 추적/도형) 등이 나오면 1등급 상위권 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 단점** | 두 검토 과정에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 방안을 더욱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선택과목에서의 여유가 다소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선택과목에 강한 사람에게 추천한다.

#### | SNU TIP |

이 등급대는 실수 + 실력의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안정적 1등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판단 하에 둘 중 어느 것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전략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 현재의 기초상 22/30번이라고 무조건 넘기지 말고 문제 한 번쯤은 읽어보고 도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주는 문제'라고 불리는 유형은 꼭 맞힐 수 있게 노력하십시오.

(ex. 삼도극/무등비/단순 수열 추론 등)

앞으로의 공부 방향

- 1 N제와 사설 모의고사를 병행하며, 자신의 실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
- 2 고민한 내용을 직접 시험해보면서 자신한테 가장 맞는 전략을 수립한다.
- 3 EBS, 기출, 교육청, 사관학교 등의 문제를 다시금 복습하면서 베이스를 탄탄하게 다진다.

ADVICE

이 등급대의 학생들은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무리하게 만점까지 올리려는 노력보다는 현재의 점수를 유지하며 수능 때 4점 정도만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한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기 객관화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92~100점을 위하여

2~3등급 학생들은 기초가 부족하기보다는 일부 실수와 모르는 문제가 동시에 결합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맞힐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맞자는 마인드로 갈 필요가 있다. 특히나 검토 시간을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시간대이다. **미적분/기하** 선택자의 경우 아래의 플랜을 따르고 **확통** 선택자의 경우 아래의 플랜에서 선택 과목의 시간을 3~4분 정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Strategy 01 준킬러 먼저 킬러 나중 플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4번	16~21번	23~29번	15/22/30번		전체 검토				

- 장점** | 검토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2등급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남은 문제를 잘 찍고, 문제 운이 잘 따라주면 1등급까지도 가능하고, 검토 시간도 상당히 보장된다.
- 단점** | 검토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점수가 따라준다. 다시 말해, 마지막 30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킬러 문제를 풀 때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Strategy 02 순서대로 플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5번		16~21번	22번	23~29번		30번	전체 검토		

- 장점** | 가장 무난하면서 점수받기 좋은 플랜이다.  
 공통과목에 유리할 경우 공통 점수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으며, 심리적 요인에 의한 만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 단점** | 중간에 특정 문제에서 막힐 경우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연습이 많이 요구된다.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루틴이다.  
 넘어가는 문제 수가 많은 경우 심리적 압박이 클 수 있다.  
 선택 과목에서의 심리적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다.

Strategy 03 킬러만 나중에 플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21번			23~29번		22/30번		전체 검토		

- 장점** | 실력을 향상하고 긴장되는 상황에서의 대비가 가능하다.  
 문제만 잘 맞추고 대비 가능한 유형(삼도곡/수열 추적/도형) 등이 나오면 1등급 후반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 단점** | 앞 문제의 검토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가 생각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가 큼)  
 경우에 따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SNU TIP |

여기서부터는 정말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자신의 유형에 맞는 스킬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공부 방향

- 1 N제를 통해 심화 문제에 대한 처리 능력을 기른다.
- 2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취약 유형 및 시간 관리 전략을 조절한다. 이때, 자신의 실수 유형이나 잘 못 푸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3 시험 전 2주간은 기출문제, 교육청, 사관학교 등을 풀면서 마지막으로 평가원의 유형이나 발문 등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ADVICE

이 영역의 학생들은 대부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첫째는 실수로 인해 만점을 못 받는 경우, 둘째는 심화 문제를 빠르게 풀지 못해 만점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학습 유형이나 전략도 달리 해야 합니다. 실수 노트 등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